

2021년 1월호(제 193호)

소중한사람들

당연히

학교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회에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놀이터에는
깔깔대고 웃는 어린이들이

시장에는
반찬 파는 상인들과
반찬 사는 아낙네들이

언제까지나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당연히가 사라진
낯설고 두려운 이 땅에도
모진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려나?
차갑게 언 땅을 뚫고
과연 봄이 올 수 있으려나.

그래!
봄은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神이 보내는 것이니
당연히 오리라!
그 날에 사라진 것들도
제 자리로 돌아오리라.

시. 유정옥

발행인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10-7195-3045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아들의 습관

저의 첫째 아들인 황희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면 꼭 기도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리 저리 바쁜 와중에 아이가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내가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습관으로 인해서 황희는 당연히 어딜 가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든다는 말을 한 것은 저는 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황희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자라면서도 아이들은 그 기도의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부모가 살아가는 대로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 3일 전 메신저를 통해서 한 영상이 저에게 링크되어 왔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의 눈물 어린 설교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관한 각종 기사들에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말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판입니다. 세계로 교회의 영상을 보면 알지만 성도들은 장의자에 한명씩 앉아 있고 그것도 지그재그로 앉아 있었습니다.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하라는 명령에 손현보 목사는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믿음과 영성이 섬김과 함께 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유튜브로만 봐야 한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명 이하로 예배하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0명 이하란 사실상 예배를 영상으로만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스텝만 해도 2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섬김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와 높은 성전 산까지 올라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이 편안하게 벵엘과 단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까지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예배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 불같이 타오르던 영성에 편의주의적 영성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계승도 그 대가 끊어질 위기입니다.

인간의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왜 굳이 헌신하고 섬기고 열정을 내려 하겠습니까?

주일 아침 9시에 있는 교사로의 섬김을 위해 아이들을 새벽부터 깨워서 안가겠다는 아이들을 억지로 태우고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던 그 길이 끊긴지 벌써 1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1년 내에 정상 생활로 복구될 것처럼 계속 기대를 하지만 사실 백신이 나와도 정상 생활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의 자리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모든 이들에 이르기 까지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영성이 습관화 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손현보 목사의 눈물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지, 교회가 예배의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배실과 식당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 그 수가 2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200명이 되도 예배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암환우를 지키며, 또한 세상의 비난을 감내하며 예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소중한 사람들에서 과연 예배를 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서 예배를 빼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직 주님은 저에게 그 시험 문제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배를 해도 정부의 시책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우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이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 속에 당연히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깁시다. 이 시대가 끝나면 지금처럼 편안했던 마음으로 예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헌신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의 예배는 아마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도가 모든 일에 우선하고, 예배가 모든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함을 뺏속까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골수까지 깊숙이 자리 잡은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너진 자들, 병으로 쓰러진 자들, 삶의 고난을 버티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 아들 황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처럼 나는 나의 삶 전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배하다가 잡혀가서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 제 아들 황희가 아버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 삶을 다 바쳐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지켜갈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4:23

글 / 이성일 목사



▲ 겨울운동



▲ 김밥으로 나누는 사랑



▲ 멋진겨울산행



▲ 미녀들의수다



▲ 성탄을 준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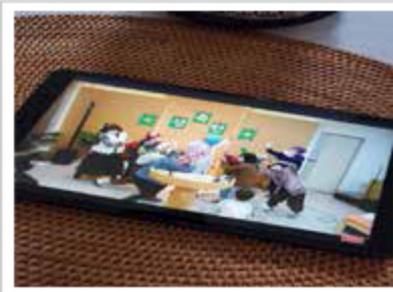
▲ 성탄을 준비하며



▲ 성탄을 준비하며



▲ 성탄의기쁨



▲ 성탄의즐거움



▲ 소중한사람들의성탄절



▲ 에쁘죠



▲ 전도복발수로식



▲ 최고예요



▲ 축복의설원



▲ 트래킹

크리스마스의 실종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은 2020년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송두리째 실종되는 괴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없고 심지어 자녀들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사라지고 홀로, 따로따로의 세상이 된 것이다.

지난 12월을 지나며 크리스마스까지 실종된 것이 슬펐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누구나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있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겼다. 어른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중에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가서 과자나 빵을 선물로 받은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많았다.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며 양말을 걸어두고 설레이며 잠들지 못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이제는 어디에도 없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있었나? 올해 크리스마스는 쓸쓸하고 조용했다.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노숙인들의 무료급식을 섬겨온 나는 무료급식이 나의 일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기 전에는

내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것은 그냥 일상이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서 당연히 주어지던 일상들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도 구청, 시청에서 연일 출두하여 무료급식을 폐쇄하라고 협박했다. 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늘 가슴에 둔다. 폐쇄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폐쇄하는 길이 열리고 폐쇄하지 않고 계속 무료급식을 하려고 마음을 다하면 그 길이 열린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받으려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라고 권면했다. 노숙자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16년 동안 나와 함께 늙어가는 노숙자들은 이것은 노숙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급식을 계속 주려는 나의 진심임을 안다. 노숙자들은 ‘그까짓 밥 한 그릇 주면서 별것을 다해오라네.’ 투정 한 번 없이 몇 백 명이 코로나 선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왔다.

구청과 시청에서 요구하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지침을 다 지키고 한 발 앞서서 노숙자들이 선제 검사를 하게 하니 더 이상 폐쇄 명분이 없게 되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실종되었으나 2천년 전 그 날에 천사들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기쁨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소서!

크리스마스때 조용한 적막을 깨고 하나님이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쿵! 쿵! 쿵! 보내 주었다.

쌀, 고기, 떡, 과일, 방한복, 모자, 장갑, 마후라, 발열내의, 팬티, 핫팩, 마스크, 치약, 칫솔...

헤아릴 수 없이 줄줄이 노숙자 선물이 전국에서 답지 되어 서울역 노숙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다시 찾아왔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날이었다.

크리스마스에 청평 암환우 힐링센터에서는 환우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성극과 찬양, 율동을 했고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져 내렸다.

암환우 힐링센터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석했다가 산을 내려오면서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소중한사람들 서울역 노숙자들과 청평 암환우에게만 온 것 같아요.

2천년 전에도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소식을 전해 주신 것처럼요.”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실종되었는데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헌신이 있어야겠다.

글/ 유정옥

2020년 12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천사헌금● 김선경(1,000,000) 한희숙(1,000,000)	김선영(1,000,000) 김다비다(400,000)	손태정(1,000,000) 황보순(100,000)	이은주(1,000,000)	이인순(1,000,000)	정혜실(1,000,000)	한중석(1,000,000)
●십일조● 권분희(70,000) 이인순(50,000)	만안나(130,000) 이희숙(30,000)	박광수(120,000) 임순미(300,000)	박근래(35,000) 정여은(90,000)	변영미(100,000) 정혜실(100,000)	신현숙(100,000) 정훈기, 박효정(120,000)	이상일, 박선호(300,000) 최영재(100,000)
●성탄헌금● 권은미(50,000) 성낙희(50,000) 이인순(100,000) 최영재(50,000)	김순정(80,000) 양옥경(50,000) 이희숙(50,000) 최영희(30,000)	김우현(100,000) 윤채원(50,000) 임순미(50,000) 최정림(100,000)	만안나(50,000) 이예은(30,000) 정여은(10,000) 황순찬(50,000)	박교석(100,000) 이옥경(100,000) 정우희(50,000)	박용범(20,000) 이용림(50,000) 정훈기(50,000)	서상훈(30,000) 이은규(100,000) 최영애(50,000)
●감사헌금● 구재은(76,723) 김연희, 정윤호(500,000) 만안나(100,000) 서상훈(400,000) 이달호(150,000) 이인순(70,000) 정우희(30,000) 황순찬(300,000) 김영숙(30,000) 박관희(5,000) 소한태(10,000) 유성진(200,000) 이은규(30,000) 정지현(200,000) 현성원(50,000) 서울서교회(100,000)	권분희(200,000) 김용옥(50,000) 박광수(25,000) 성낙희(100,000) 이미라(450,000) 이희숙(220,000) 장자연(500,000) 강가상(10,000) 김유미(30,000) 박순화(20,000) 손영옥(50,000) 윤순남(50,000) 이진수(30,000) 조옥선(20,000) 황옥남(30,000) 박태준(10,000) 김주은(40,000) 도주은(40,000) 장승아(10,000) 한진희(500,000)	권분희(200,000) 박광수(100,000) 신현숙(250,000) 이상일, 박선호(240,000) 안종복, 김순애(300,000) 김현숙(1,000,000) 박애경(30,000) 신진경(50,000) 윤애임(50,000) 이한나(50,000) 조하준(50,000) 계영산업(100,000) 김규욱(30,000) 김경미(20,000) 도주은(40,000) 정여은(5,000) Ahn Anna(200,000)	권은미(150,000) 김우현(400,000) 박교석(700,000) 양옥경(300,000) 이예은(10,000) 임영재(50,000) 최영애(300,000) 권경희(100,000) 안경자(100,000) 이금자(100,000) 임승환(100,000) 최영희(10,000) 국회기도회(50,000)	김선애(50,000) 김지순(300,000) 박선인(344,638) 오윤재(60,000) 이옥경(150,000) 임순미(350,000) 최영희(90,000) 김광숙(30,000) 나지용(10,000) 박향선(100,000) 안영희(400,000) 이든구(1,000,000) 임승환(50,000) 하-님의상금(100,000) 다나엘기도사랑의헌금(10,000,000)	김순정(270,000) 노은순(40,000) 백준호(200,000) 유정옥(600,000) 이용림(250,000) 전옥교(50,000) 최영희(50,000) 김순정(700,000) 리브머니(70,000) 변영은(300,000) 연영순(10,000) 이양복(10,000) 장승아(300,000) 한은숙(400,000)	김연희(820,000) 문경옥(30,000) 변영미(100,000) 윤채원(350,000) 이은규(120,000) 정동익(50,000) 최정림(10,000) 김연진(5,000,000) 문수민(100,000) 성정음(50,000) 유선정(100,000) 이원옥(1,000,000) 정동익(30,000) 한향식(200,000) 목회지원센터(100,000)
●CMS헌금● 강은숙(20,000) 김진영(200,000) 이혜경(50,000) 한중일(40,000)	김민정(10,000) 김한정(200,000) 장승아(10,000) 한진희(500,000)	김규욱(30,000) 도주은(40,000) 정여은(5,000) Ahn Anna(200,000)	김경미(20,000) 박경미(50,000) 정은경(10,000)	김분기(50,000) 소희남(60,000) 조남남(20,000)	김성재(40,000) 윤화숙(30,000) 조영실(40,000)	김영신(100,000) 이상림(100,000) 하정민(20,000)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십일조	1,745,00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854,145
감사헌금	34,936,361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1,792,435
성탄감사헌금	1,550,000	식자재구입비	6,410,692
천사헌금	8,500,000	전기요금	4,536,050
CMS헌금	2,025,000	가스요금 및 열량비	1,429,100
		화재보험료	1,200,000
		KT통신비	479,050
		CMS사용료	106,000
		비품구입비(소모품)	309,500
		집기구입	2,790,500
		공사비, 수리비	602,500
		안전점검비	594,000
		우편발송비, 광고비	72,300
		급여인건비	13,370,850
		4대보험료	1,002,180
		차용금환급	14,000,000
금월 수입 합계	48,756,361	지출 총액	49,549,302
전월 이월금	1,163,238		
차입금			
총 수입 합계	49,919,599	금월 잔액	370,297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지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2월 가입자 명단 (8명)

244. 김선경 245. 김선영 246. 손태정 247. 이은주 248. 이인순 249. 정혜실 250. 한중석 251. 한희숙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옥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영구	6. 김수영	7. 설종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봉
11. 박철홍	12. 정동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은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차은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복	24. 박순화	25. 임광태	26. 한영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혜란	35. 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정용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영옥	44. 최범택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철자	48. 정한중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완	52. 최범택	53. 최유은	54. 최애은	55. 박정애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이하기
61. 이원영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관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현영	78. 배경하	79. 최수원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정은	83. 신성관	84. 정훈기	85. 정희창	86. 정여은	87. 박효정	88. 허명중	89. 김미원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홍철홍	96. 홍영주	97. 김현숙	98. 무 영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봉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정아	105. 황현동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용연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향순	114. 이동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희영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상희	123. 박유민	124. 이한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희	129. 조영진	130. 박차연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해숙	136. 양수진	137. 심재복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다비다	142. 진자야	143. 조혜숙	144. 이형훈	145. 박해정	146. 만안나	147. 이금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영희
151. 청명힐링	152. 김화연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여은	156. 임순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열리	165. 이예슬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말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성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든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자연	184. 문자수	185. 이다정	186. 이든구	187. 송희중	188. 이아름	189. 정윤호	190. 김순애
191. 인종복	192. 이명화	193. 유귀현	194. 이든구	195. 이용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숙	199. 윤대요	200. 최금련
201. 김호년	202. 김혜림	203. 장승아	204. 황보순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자람	208. H	209. 백성운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영	214. 황순찬	215. 박미향	216. 유민성	217. 우짜미샤사	218. 이은주	219. 백성운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의선원재료	228. 김예송	229. 김수현	230. 김수현
231. 장란숙	232. 김숙희	233. 남원학	234. 남지영	235. 남해원	236. 김선경	237. 김선영	238. 손태정	239. 이은주	240. 이인순
241. 정혜실	242. 한중석	243. 한희숙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소나무 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0년 12월 씨앗헌금 무명 30,000,000 김영미 100,000

2020년 12월 5명의 환우에게 2,472,40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의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환우들이 면역성이 약하여 외부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는 계속 되었지만 외부의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해야 하는 환우들 명단을 올려 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최*자-8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난소암 수술후 4차 마지막 항암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끝까지 힘주셔서 항암 부작용 없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발 저림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이*라-복막전이입니다. 항암치료를 46회나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중단할 수 있도록 현재 항암약이 신경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잔존암들이 속히 파쇄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권*화-대장암입니다. 계속 항암중입니다. 항암 부작용 없이 견디고 암세포가 완전히 진멸되어 완전히 회복되기를 잔존암이 파쇄되고 녹아져서 없어지기를 대장 내시경과 ct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최*애-유방암에서 늑막다발성 폐다발성 경추 척추 간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갈비뼈 전이 척추 밑에 허리 전이 기존에 있던 폐4군데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서 항암치료가 연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임*마-직장암 재발되었습니다. 임시 장루하고 있는데 장루가 잘 자리잡고 세는 일이 없도록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새벽기도를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 김*자* 집사님:
어린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유방암 4기 환우입니다. 유방에서 간과 뼈와 뇌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를 통해서 간과 뼈에 전이 된 암을 줄여 들었는데 뇌에 전이된 암은 커졌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뇌 전이임이라 방사선치료로 잠시 진행 속도를 늦춰 놓았지만 다시 암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은 항암약도 없고 치료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발견되기를... 암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치료되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환* 집사님:
항암 후유증으로 피부 가려움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항문 통증이 심해 숙면하기가 어려운데 속히 통증이 잡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기를, 복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부작용(부종)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지러움증이 없어지도록, 김*용* 남편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 이*영* 사모님:
남아있는 암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흑산제일교회를 지켜주세요
9. 윤*채* 사모님:
유방전이 재발암입니다. 2020년 11월 4차 항암치료를 통해 뼈와 폐의 암세포가 소멸되도록 치료과정중 몸뿐만 아니라 내면의 놀림과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어 영과 육이 강건해 지기를 치료기간중 3자녀들의 양육을 돕는 손길을 보내주어 엄마의 부재에도 결핍없이 잘 양육되기를 남편 목사님 갑상선이 예민해져 있어 성대가 상하지 않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 서*상* 집사님: 재발 전이암
뼈와 대장과 림프에 전이되어 통증이 심하고 입맛이 없어 식사도 잘 못합니다. 빨리 컨디션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울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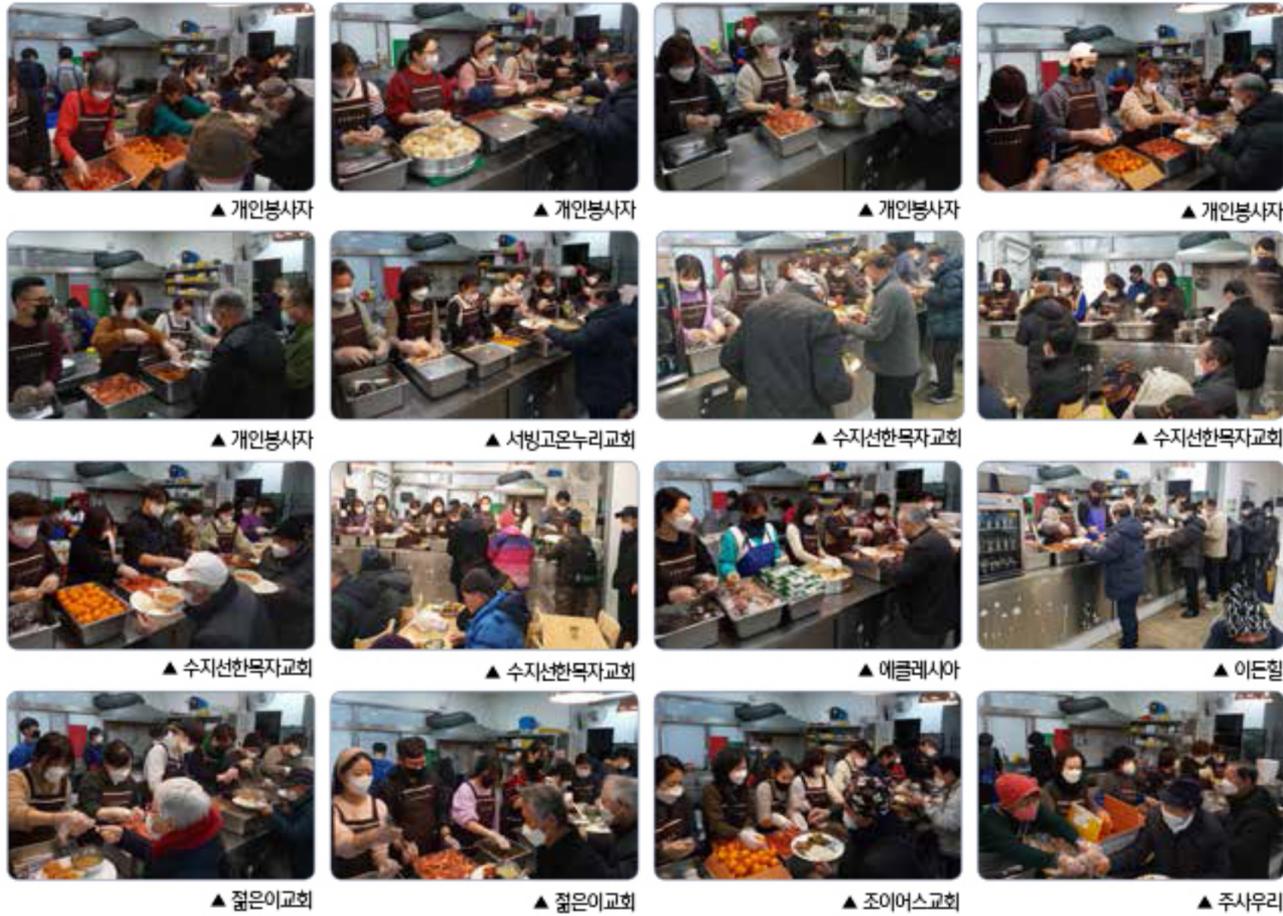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서빙고온누리교회 ▲ 수지선한목자교회 ▲ 수지선한목자교회
 ▲ 수지선한목자교회 ▲ 수지선한목자교회 ▲ 에클레시아 ▲ 이든힐
 ▲ 젊은이교회 ▲ 젊은이교회 ▲ 조이어스교회 ▲ 주사우리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는 연일 급식을 폐쇄하라고 통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16년 동안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그대 로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300명 이상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수지선한목자교회에서 2일, 9일, 16일, 17일, 18일, 23일, 29일, 31일에 봉사해 주셨습니다. 8일 조이어스교회, 12일 에클레시아,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6일, 주사우리 30일, 이든힐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권경희, 권미희, 김선화, 김유미, 김진숙, 김태희, 김희숙, 박은경, 박혜진, 신순임, 박은순, 박정숙, 서정국, 석동신, 손수정, 안미라, 여예인, 용혜경, 이삼숙, 이시은, 이정희, 이평은, 임경숙, 전용선, 천정희, 최금련, 최기은, 한현희, 황인옥, 김도영, 김선규, 노정규, 박경근, 김용수, 김효선, 유하나, 이한숙, 임맹자, 장종숙, 허청만, 한송희...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변 급식소들이 문을 닫게 되니 급식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숙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많은 영혼을 맡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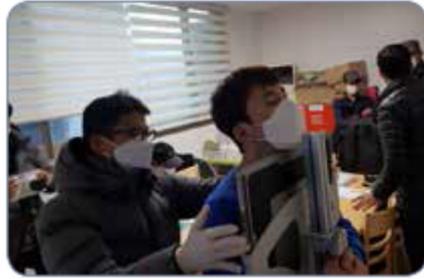
▲ 겨울점퍼나눔 ▲ 내복나눔 ▲ 마스크나눔
 ▲ 마후라햇때나눔 ▲ 모자방한장갑나눔 ▲ 땀유나눔
 ▲ 수지선한목자교회이미용부 ▲ 양말속웃나눔 ▲ 양말속웃나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힘들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지친 삶의 어려움속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해 한가지, 두 가지 정성스럽게 만들고 다듬고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물품을 매일같이 나누어 주는 나눔속에 소중한사람들 모든이들이 하나될 수 있어서 행복한 12월이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매일 예배와 합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엘, 조진영, 정기중, 이은철, 이성일 목사님과 김재정, 이범주 교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2월19일 34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26일 62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미용으로 섬겨주신 수지 선한목자교회 이,미용부의 봉사와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남성 센터



▲ 결핵검사



▲ 무료방역-공기수비대안성원님



▲ 생활인큐터



▲ 전기안전점검



▲ 코로나19_검사



▲ 프로그램 지도점검

센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인들 중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센터는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소 생활인들은 센터를 출입할 때 행선지를 밝히고 직원의 승인을 받아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 아니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 해야 하며 직장 아닌 곳 중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입소 생활인 34명 전원에 대한 결핵 검사가 있었습니다.

*12월 22-28일까지 입소 생활인 34명과 직원 10명 봉사자들까지 코로나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원 음성 확인을 받았습니다.

*12월 11일 중구청과 전문인의 프로그램 점검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에서 박지훈에 이어 마성일님이 1종 대형면허 자격을 취득했고 이번 달에는 임승욱님이 1종 대형 면허를 정병복님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2월 27일에는 중구 보건소에서 센터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12월 28일에는 소독 전문업체인 남양주 공기수비대(안성원)에서 센터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매일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센터는 현재 34명이 입소되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을 준비하고

김상진 복지사와 이제호, 백용하 지도사님이 생활인 한 분 한 분 일대일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은 매일 6시 QT를 통해 영광픈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QT 시상자는 권오영, 김창길, 마성일, 방효진, 배일근, 서성원, 임덕환, 장근열, 정길진님입니다.

센터 생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회인으로 가정인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사람들 센터가 일인실 센터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상담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3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3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835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최영자, 신현숙,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임순미, 최영애, 이종림, 김순정, 성낙희, 양옥경, 황순찬, 구재은, 박교석, 김지순, 윤채원, 최정임, 이옥경, 서상훈, 이달호, 최영희, 이민순, 이은규, 구자은, 이영리, 김진임, 허선영, 박미행, 권은미, 김연희, 김우현, 정우희, 황미순

6.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기열,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혜숙, 박영례, 김연희, 안정희, 유춘애, 김현충, 최은희, 이명숙, 김영민,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안종복, 김미희, 박경미, 재발되지 않도록

7. 신형진님이 스피라자 주사맞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앤드류 구명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아이티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귀퉁 마을에 현대식으로 초등학교와 교회를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퉁마을에 지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아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악탈과 납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칼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멕시코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2010년 3월 멕시코 엔시나다에 인디오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 겸 고아원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디오 원주민들은 감뽀라는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단 거주를 하는데 15살때부터 아이를 낳아 한 가정에 아이가 6~10명이나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은 매춘부나 마약딜러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멕시코 엔시나다 오벤에돔의 집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2009년 11월부터 중국 도문시 애심 복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은 탈북자들의 아이들이거나 연변에 버려진 조선족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아후원 사역은 한철범 원장님, 선교는 최민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이 묶여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필요한 물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북한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풀리면 바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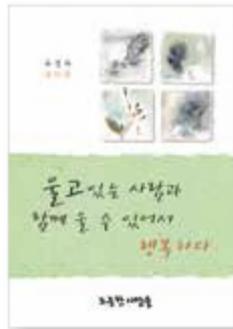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퍼져 가야 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86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유정옥 사모의 신앙생활을 담은 에세이
 고아가 된 어느 남매를 맡아 키운 이야기
 생면부지의 암환자를 봉양한 이야기
 먼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등
 삶의 굽이마다 펼쳐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정가 10,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세 번째 이야기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http://café.naver.com/orangececkpu>에서
 육아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YES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9.7 /10.0
 두 아이를 키우는 박선인 사모가 실제로
 아이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동으로 풀어가는 영롱한 이슬 같은
 예쁜 이야기 글 모음이다.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의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서울역 노숙인들 곁에서
 12년간 함께 해온 유정옥 사모가 그곳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워할 때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정가 12,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네 번째 이야기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 사모의 우리아이를 위한 예쁜 글모음, 그 두번째
 내 아이를 위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
 우리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양육해 가는 세밀한 과정을
 사랑의 마음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
 이 책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자존감을 상실
 한 어른들에게도 사랑과 힘이 깃들게 되는 선한 지침서와도
 같은 사랑과 지혜가 담긴 글 모음이다.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말씀 통독, 정독 및 성경 공부용 신개념 성경
 <형광펜 성경1, 2, 신약>

펴낸이 <이성웅/이하나> 출판사 <하늘창고>
 [형광펜 성경 1]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묶어 8월 17일에 출간되었으며, 역대상부터 말라기까지 묶은 [형광펜 성경2]가 2016년 4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광펜 성경 신약]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개역한글판"으로 출간됩니다.

형광펜 성경의 표시 방법은
 각 장 별로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서 다르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2~3단어의 짧은 구절은 글자 색에 변화를, 4~8단어의 구절에는 같은 색의 밑줄을, 9단어 이상의 긴 구절에도 글자 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짧은 구절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시를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구절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형광펜 성경 신약]에서는 구약이나 해당 복음서 안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 복음서가 쓰인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 그 의미를 본문 옆에 기록하였으며, 무엇보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찾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그림 혹은 지도를 찾아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형광펜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형광펜 성경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성경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형광펜성경 하늘창고를 검색하시면 동영상 강의로 쉽게 성경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티타임&바이블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

티타임&바이블은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 성경 모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작은 성경 카페 같은 모임이에요. 특히,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질문하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티타임&바이블에서 혼자 또는 함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티타임&바이블에 함께 모인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오셔서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다 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티타임&바이블에서는 티와 커피가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픈한 공간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일정 ***

- 로마서 (화 오후7:30/ 강남구청역 갯피플웨딩)
- 사도행전 (금 오후7:0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다니엘 (주일 오전 9:3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직접주문(02-365-9106)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의 책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암환우 힐링 센터 의료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추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도 저렇게 큰 함박눈이 내리나요?
소나무는 깊은 겨울에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오늘처럼 함박눈이 밤새 내린 날 아침에 하얀 눈꽃을 한가득 안고서 있지요.
후원자님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합니다.
가족도 없이 돌아갈 집도 없이 길가에서 유리하는 노숙자들이 나의 식구요, 가족으로 섬겨 온지 열일곱 해를 맞이합니다.
그 섬김이 힘들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하고 있는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함께 갑시다.

12월에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영숙, 문가은 문나영, 문영완 문영숙, 안현진 이영현, 이성웅 이한나, 이용수 이선아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선미, 구명신, 김갑희, 김경숙, 김경옥, 김남이, 김순복, 김애원, 김연진, 김영우, 김영훈, 김유미, 김정희, 김채완, 김현숙, 김화자, 나온선, 나종숙, 남원학, 남지영, 남혜원, 노아, 동광프리즘, 명은자, 무명, 박혜수, 백다솔, 백용하, 백은향, 변영미, 성혜숙, 송희중, 신명순, 신형진, 신혜영, 심소아, 안미라, 안영희, 안정희, 양지혜, 오동원, 유건만, 유광현, 유재학, 유정옥, 유하나, 이연정, 이연효, 이영자, 이윤정, 이윤화, 이주열, 이주희, 이지선, 이태규, 이혜숙, 임나리, 임덕환, 임맹자, 임윤엽, 임호규, 장지호, 전승희, 정정해, 정형필, 추연국, 홍보석, 홍복실, 황영상, 황유선, 황정아, 황지혜, Lee Mok Yu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 현금을 보내주신 강성희, 오대영, 주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도영 이한숙, 이성웅 이한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현금을 보내주신 (기갑)안양감리교회, (기갑)은제교회, (예정)영락교회, (예정)영락교회 주일학교, (예정)서빙고 은누리교회, (예정)서빙고은누리교회와 빛의 자녀들교회, (예정)전주중부교회, (예정)한광교회, (사)은누리약국사회복지회와 대표 박종화님과 기독교사람센터, (사)서울 남성합창단, 주사우리, 흥부네, (주)서일이앤엠, (주)영진공영, (주)포스코 PTT재무관리그룹, (주)한국 경제 신문사님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번성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티 선교현금을 보내주신 박서준, 신혜영, 조경숙, 한종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안마, 멕시코, 중국, 북한 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아이티로 직접 송금하여 아이티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미국 뉴저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임환우 힐링센터 섬김 현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여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여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심터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안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임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임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법적인 울무에 잡혀 있는 분들이 승리하여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라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유운이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고동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진수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환우님 최영자, 신현숙,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임순미, 최영애, 이용림, 김순정, 성낙희, 양옥경, 황순찬, 구재은, 박교석, 김지순, 윤채원, 최정임, 이옥경, 서상훈, 이달호, 최영희, 이인순, 이은규, 구자은, 이연리, 김진임, 허선영, 박미행, 권은미, 김연희, 김우현, 정우희, 황미순님이 암에서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임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기열,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혜숙, 박영려, 김연희, 안정희, 유춘애, 김현충, 최은희, 이영숙, 김명민, 정종익, 이정화, 고혜옥, 인종복, 김미희, 박경미, 재발되지 않도록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7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새해에도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12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재고
12/2	타에스엔비 고금순대표	kf94마스크	2000매	12/3~14	마스크 나눔	거리노숙인	매일 200매	0
12/4	푸드뱅크	빵	4box	12/5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4box	0
12/7	푸드뱅크	떡, 만두	1box	12/7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각1box	0
12/7	푸드뱅크	빵	6box	12/8,9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각3box	0
12/8	목3중 롯데마트	바나나	3box	12/8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box	0
12/8	목3중 롯데마트	굴	4box	12/8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4box	0
12/10	주식회사 노아	돼지고기	100kg	12/11,12,14,15,16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20kg	0
12/10	주식회사 노아	소고기	20kg	12/13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0kg	0
12/10	무명	쌀10kg	3포	12/1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포	0
12/11	푸드뱅크	빵	4box	12/12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4box	0
12/13	더순	쌀20kg	3포	12/14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포	0
12/14	푸드뱅크	빵	4box	12/15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4box	0
12/15	주인자	시금치	5box	12/16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5box	0
12/16	푸드뱅크	쌀10kg	20포	12/17~12/2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매일 4포씩	0
12/17	한진희	마스크	5000매	12/18~1/11	마스크 나눔	거리노숙인	매일 200매	0
12/18	푸드뱅크	빵	4box	12/19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4box	0
12/19	fnb노아 이상훈대표	장갑, 모자	350마	12/30,31	방한의류 나눔	거리노숙인	각175마	0
12/19	윤해경	kf94마스크	500매	1/12~1/16	마스크 나눔	거리노숙인	매일 200매	0
12/19	안미아	kf94마스크	500매					
12/19	윤해경	햇떡	100개	12/19	햇떡 나눔	거리노숙인	100개	0
12/21	국민건강보험공단	kf80마스크	2000매	1월중나눔	1월 중 나눔 예정	거리노숙인	0	2000매
12/21	무명	쌀20kg	1포	12/22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포	0
12/21	일산명성교회	kf94마스크	600매	1월중나눔	1월 중 나눔 예정	거리노숙인	0	600매
12/22	전노협(공동모금회)	kn95	5000매	2월중나눔	2월 중 나눔 예정	거리노숙인	0	5000매
12/22	fnb노아 이상훈대표	발열내의 상하세트	350세트	12/23,31	옷 나눔	거리노숙인	각175세트	0
12/23	무명	선물세트	100세트	12/24	선물나눔	거리노숙인	100세트	0
12/23	무명	쌀20kg	1포	12/24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포	0
12/23	선노협	마스크kf94	400매	12/24	2월 중 나눔 예정	거리노숙인	400매	0
12/23	선노협	차약	90개	12/24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90개	0
12/23	선노협	비타민	30개	12/24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0개	0
12/24	서빙고은누리교회, 빛의자녀들교회	밥알잡쌀떡	330개	12/24	노숙인 생일 잔치	거리노숙인	330개	0
		케익	2개			거리노숙인	2개	0
12/24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백워미, 양말	150개	12/25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150개	0
12/24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편지	300개	12/25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00개	0
12/24	이든힐	쌀20KG	5포	12/25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포	2포
				12/26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포	0
12/24	맞춤	빵(보통달)	2box	12/25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2box	0
12/31	류병완	쌀10KG	30포	12/31,1/1,2,3,4,5,6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4포	2포
				1/7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포	0



㈜이스턴파트너스(50,000)	㈜점나(50,000)	㈜창세에스엔티(50,000)	갯파블워딩(50,000)	강도숙(10,000)	강명미(10,000)
강미정(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성애(5,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영철(40,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현미(20,000)	계영산업(50,000)
계용돈(30,000)	고건희(10,000)	고남균(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혜림(5,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병훈(30,000)	권유미(50,000)	권유미(30,000)
권정애(10,000)	권태준(10,000)	권혁찬(10,000)	권희규(30,000)	김빛여행사(100,000)	김상임(10,000)
김광찬(10,000)	김기열(3,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숙(10,000)	김명순(10,000)	김문숙(10,000)	김미라(10,000)	김미숙(10,000)	김미영(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베드로(10,000)	김보연(30,000)	김보연(5,000)	김복자(10,000)
김부내(30,000)	김선영(100,000)	김선미(10,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화(10,000)
김성란(20,000)	김성만(20,000)	김성봉(10,000)	김성주(100,000)	김성호(10,000)	김소라(10,000)
김소연(40,000)	김소재(5,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현(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100,000)	김순해(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영성(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인(1,000)	김영인(50,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래(10,000)	김옥경(2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의환(5,000)	김일행(20,000)	김재동(30,000)	김재정(50,000)	김정개(20,000)
김정순(10,000)	김정화(20,000)	김종매(10,000)	김종선(2,000)	김주애(20,000)	김지애(1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한내(5,000)	김향숙(10,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욱(10,000)
김현재(30,000)	김혜란(20,000)	김혜린(5,000)	김혜원(30,000)	김호년(30,000)	김홍주(30,000)
김희석(5,000)	김희숙(30,000)	김희재(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남기국(10,000)
남혜경(20,000)	노은실(10,000)	노한준(30,000)	라미영(30,000)	류명순(5,000)	류희정(10,000)
명은재(10,000)	명주현(10,000)	무영(30,000)	무영(30,000)	문경재(5,000)	문상철(1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현정(1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관택(30,000)
박명희(5,000)	박미경(10,000)	박민선(10,000)	박민숙(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서윤(20,000)	박성영(3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영배(50,000)
박영재(20,000)	박은혜(20,000)	박은혜(10,000)	박인권(2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찬국(3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미(20,000)	박호숙(20,000)	백규진(100,000)	백애임(20,000)	백안권(100,000)
백창미(5,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동선(10,000)
서상숙(20,000)	서울제일침례교회(100,000)	서정국(50,000)	서지연(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남시청신우회(30,000)	성준호(10,000)	성찬영(50,000)	손경순(3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오섭(10,000)	손진아(10,000)	송경재(30,000)	송규희(10,000)
송상신(10,000)	송재린(10,000)	송정우(30,000)	송지영(10,000)	신경재(10,000)	신순자(100,000)
신승우(50,000)	신영주(10,000)	신정영(10,000)	신호래(10,000)	신희재(20,000)	심사랑(10,000)
심수현(10,000)	심영경(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10,000)	안영종(10,000)
안유진(2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의문교회남전도회(30,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예인(20,000)
여인규(30,000)	(김포)예수사랑교회(30,000)	오재원(10,000)	오점근(100,000)	오진숙(5,000)	오혜숙(10,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소연(30,000)	유우주(10,000)	유아례(10,000)	유인규(20,000)	유정모(20,000)	유준서(5,000)	유지영(30,000)
유지영(5,000)	유지영(10,000)	유지현(30,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금복(10,000)
윤두원(10,000)	윤상길(5,000)	윤상철(10,000)	윤상훈(5,000)	윤예강(10,000)	윤예은(10,000)	윤원(10,000)	윤용석(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화숙(3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0)	은미선(100,000)
이강선(1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수(10,000)	이경호(10,000)	이공미(100,000)
이관호(2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10,000)	이만식(30,000)	이명숙(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30,000)	이산록(20,000)	이선미(20,000)	이선영(50,000)	이선호(10,000)
이성자(20,000)	이성호(10,000)	이수민(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승은(30,000)	이승재(10,000)
이애희(10,000)	이영록(30,000)	이영미(30,000)	이영숙(200,000)	이옥경(50,000)	이원경(10,000)	이원우(3,000)	이윤미(30,000)
이윤미(10,000)	이윤희(10,000)	이은숙(10,000)	이은혜(50,000)	이의희(10,000)	이장일(10,000)	이재형(10,000)	이정원(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훈(50,000)	이주아(20,000)	이준욱(110,000)	이지숙(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식(20,000)	이창호(50,000)	이항순(50,000)	이현희(20,000)	이현주(20,000)
이현희(10,000)	이현희(10,000)	이혜경(10,000)	이혜성(5,000)	이홍종(3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주(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1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5,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진옥(30,000)	임혜순(30,000)	임화경(30,000)	장문삼(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용훈(100,000)	장윤정(10,000)	장인화(30,000)	장현숙(30,000)
전금자(30,000)	전애영(20,000)	전영신(100,000)	전재국(10,000)	정경아(5,000)	정경호(30,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덕재(40,000)	정두레(10,000)	정두섭(10,000)	정문호(1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민용, 김유미(20,000)	
정보석(10,000)	정성분(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윤경(10,000)	정은채(50,000)	정은희(10,000)	정재호(40,000)
정재희(30,000)	정종근(50,000)	정진숙(10,000)	정해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재(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광희(10,000)	조근정(10,000)	조마숙(10,000)	조미원(60,000)	조민희(30,000)	조성림(10,000)	조성원(1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윤정(100,000)	조은영(10,000)	조은영(10,000)	조혜원(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찬양교회(50,000)	지선옥(12,000)	지영자(20,000)	진순애(1,000)	참소망연합의원(50,000)	채송희(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채희재(5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최경선(10,000)	최귀영(10,000)	최병수(30,000)
최성근(50,000)	최수경(40,000)	최영숙(6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원희(100,000)	최원동(10,000)	최유리(10,000)
최윤규(2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주덕(20,000)	최춘삼(10,000)	최춘희(30,000)	최현숙(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기윤(2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선종(5,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한진희(800,000)	한혜민(20,000)	함수아(40,000)	허명수(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성진(10,000)	허인애(30,000)
현정은(1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유미(5,000)	홍재필(20,000)	홍정희(20,000)	홍제영(10,000)	홍주연(20,000)
홍진애(10,000)	황금해(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애(20,000)	황중문(10,000)
황희천(20,000)							